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가 조금만 와도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하나요?

비가 내린다고 해서 모든 콘크리트 타설을 즉시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우로 인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중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서 시간당 강우량 3mm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간당 강우량 3mm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관리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 표면에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품질관리와 작업중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과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콘크리트 타설 중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설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선 강우량과 향후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우로 인해 콘크리트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을 비닐시트나 방수천막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타설이음을 설치하여 후속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4.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비를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콘크리트를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우량, 강우 지속시간, 콘크리트의 경화 상태 및 표면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유실되었거나 골재 노출, 레이턴스, 재료분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품질검토와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5. 강우 후 콘크리트 품질검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강우 후에는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골재 노출, 레이턴스 발생, 표면 강도 저하, 균열, 재료분리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강우 중 타설된 구간은 일반 구간보다 더욱 세심한 양생관리가 필요하며, 품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시험과 기술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